

전혀 거부감 없는 시골마을 속의 목장

-인경목장(2006 우수상 수상), 유질도 목장도 최고로 관리

취재 및 정리 : 김 재 민 (축산경제신문 기자)

화성시는 도내 최대 낙농목장 밀집지역으로 강원도와 충북도의 전체 젖소 사육두수를 넘어설 정도로 낙농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우정읍 주곡리 일대만 해도 십여개의 목장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화성 시에서도 황해와 인접해 있어 동부권에 비해 개발이 덜 진행되어 낙농목장 뿐만 아니라 축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인경목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목장으로 목장이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해 목장 입지로는 불리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977년 젖소 몇 마리를 구입해 시작한 낙농은 1997년 현 위치로 목장을 이전했고, 2001년 관상수 및 화초를 식수하기 시작하면서 마을 속에 불거리를 제공하는 낙농목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지나 이제 시골마을에도 삶의 질이 주거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나는 목장이 마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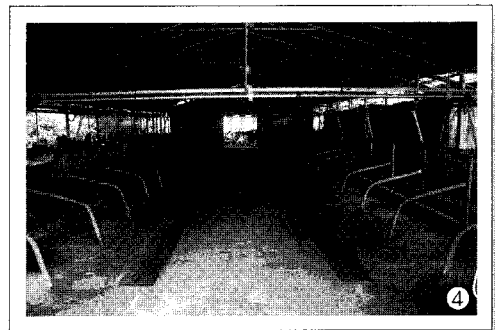
더욱이 원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목장이 이전해 왔다면 그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인경목장은 그러한 불리함을 청결한 목장관리로 극복해 냈다.

마을 도로가에 바짝 붙어 있는 목장이지만 전혀 분뇨에서 나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예쁜 꽃밭까지 조성,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곳이다.

목장을 경영하는 부부의 바지런한 성격 탓에 2003년에는 낙농진흥회가 수여하는 최고 유질 농장으로 뽑히기까지 했던 인경목장은 까다로운 유질관리 만큼이나 목장환경 개선에 열정적이라는 것이 주변 목장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다.

차유실과 목장이 경영주의 자택거리와 직선거리로 1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목장과 집이 한 곳에 위치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철저한 관리가 이 목장의 생명인 듯하다.

>> 특집 _ 깨끗한 목장 선정, 그 후 목장의 모습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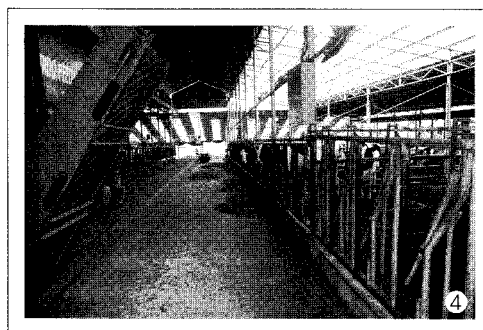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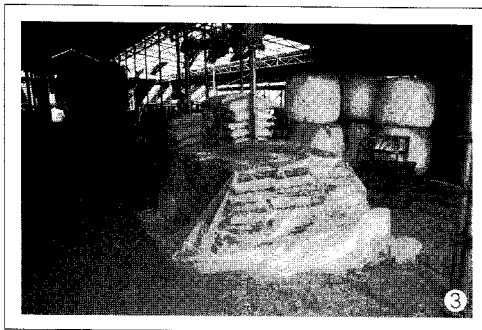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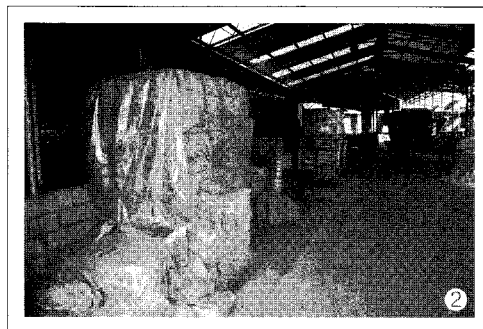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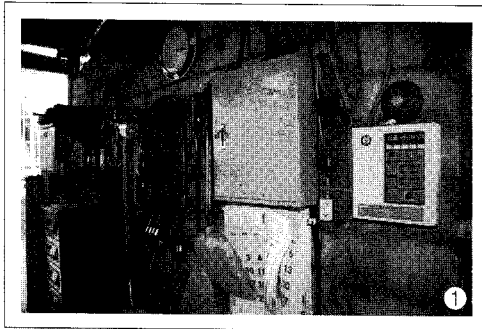
- ① 정리정돈은 단미사료도 예외일수 없다. 잘 적재되어 있는 창고의 내부.
- ② 입구부터 환한 인경목장
- ③ 입구에 화초를 잔뜩 심어놨다. 여름에 방문했던 터라 봄의 모습이 궁금했다.
- ④ 깨끗한 착유장. 관리하기 힘든 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이지만 부지런히 관리하는 탓에 늘 청결함을 유지한다.

목장 주변 조경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비싼 조경수는 아니지만 마을의 주변 경관은 물론 목장과도 잘 어울리는 관상수와 알록달록한 일년생 꽃풀이 목장 입구와 집 앞 화단 등을 수 놓고 있었다.

인경목장의 강점은 아름답게 가꾼 정원수나 꽃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깔끔하게 유지되는 목장의 환경이 최대 강점으로, 착유실이며 건초창고이며 집 앞 마당이며 할 것 없이 지푸라기 하나 마른나뭇가지 하나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다.

축사 안은 거미줄은 물론 없고, 바닥 상태가 너무 깨끗해 파리조차 날리지 않고 있었다. 각종 공구며 연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건초장도 지푸라기 하나 날리지 않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고 뒬개 까지 썬뒬 놓는 등 박인호, 권중숙 부부의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박인호, 권중숙 부부의 청결한 목장관리는 착유실과 대기장의 청소 상태를 보면 한눈에 알수 있다.



- ① 각종 공구며 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 ② 건조에는 덮개를 씌워 놓고 바닥은 청결하게.
- ③ 배합사료도 덮개를 씌워 놓았다. 파리들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 ④ 급이기는 더럽고 파리가 끼기 쉬운 곳, 이곳도 여지 없이 깨끗하다.

청소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인 파이프라인 착유장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환기상태도 좋아 연중 고른 유질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분뇨처리 문제는 목장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만 인경목장은 축사와 퇴비장의 이상적인 동선으로 청결하게 축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목장 인근에 1만여평의 자가초지를 확보하고 있고 인근 농기들에게 공급도 하며 전부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분뇨처리는 어려움 없이 해 내고 있었다.

인경목장은 2006년에 협회가 주관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의 우수목장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단지 수상을 위해 가꾸어진 목장이 아니라 한결같이 잘 관리되는 목장임을 알 수 있다. 두 부부의 성실함 탓일까. 인경목장의 깨끗한 목장 관리는 인근 목장에도 정평이 나 자신의 목장도 깨끗하게 가꾸겠다며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속속 방문하고 있다. ☺